

지역업체 올림픽 공사 1,437억 수주

경기장·진입도로 공사·설계에 50개사 참여 - 지역제한 입찰 등 활용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진입도로 건설사업에 50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0개 업체의 수주액은 총 1,437억 원으로 7개의 진입도로 사업이 추가 되면 참여 지역업체 수와 수주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 직접시설로 발주된 건설사업은 경기장 8

개 6,993억원, 진입도로 9개 3,552억원이다. 이 중 경기장 건설에는 16개의 지역업체가 참여해 1,122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경기장 설계에는 17개 업체가 참여해 86억원 규모를 수주했다. 경기장 건설과 설계의 지역업체 참여율은 각각 42%, 37%다. 또 총사업비 3,552억원인 9개의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2개의 지역업체가 199억원, 설계는

15개의 지역업체가 30억원을 수주했다. 경기장·진입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에 참여한 18개 지역업체 평균 수주액은 68억9,000만여원이다.

도는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10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참여율을 49%가 되도록 원청업체에 권유하고 있다. 설계는 3억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역제한, 3억5,000만원 이상은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평가 시 최대 4점의 가

산점을 주고 있다. 추가로 발주될 7개의 진입도로 사업비는 총 2,055억원 규모다. 또 알펜시아선수촌, 중봉대체선수촌, 급수체계 구축사업, 개·폐막식장 등 총 1조3,000억여원 규모의 대회 지원시설사업이 올해 안에 시작된다. 하지만 대회 지원시설은 사업비 중 1조1,000억여원은 등계조직위 등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지역업체 참여율은 경기장·진입도로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호기자